

출판사는 늘고 발행종수는 줄고

89년 상반기 출판통계...과당경쟁으로 출판활동 위축

70년대 이래 해마다 10~20%씩 급팽창해오던 도서발행 種數가 작년부터 주춤해져 올 상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작금년에 출판사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비추어, 이는 분명 '뿔박의 異變'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87년 5월말 현재 2,500여 사이던 출판사 수가 그해 10월 이후 출판사의 신규등록이 개방되면서 급증, 올 5월 현재 4,536사로 늘어났다. 게다가 현재도 매달 수십개씩 늘어나고 있어 출판의 양적 팽창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정작 올 상반기의 출판량은 87년 동기에 비해 0.9%, 88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5%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러한 하강현상은 사회전반에 작용하고 있는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독자나 필자는 제한돼 있는데 출판사 수만 엄청나게 늘어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급과잉과 과당경쟁을 불러 출판활동이 대체로 위축된데 말미암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출판사 수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현상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 각분야의 전문화 다양화 세분화 경향에 발맞춰 출판도 전문출판을 표방, 개성적인 기획과 다양한 출판활동으로 독자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총 21,108종 발행...작년同期比 0.5% 줄어

올 상반기(1월~6월)의 총발행종수는 21,108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1,229종에 비해 0.5%(121종)가 감소되었다. 이를 版次別로 보면 초판은 8.3%가 감소된 반면 重版은 10.4%가 증가됐다. 분야별로는 기술과학 어학 등 실용도서 분야가 비교적 활발했던 데 반해 사회과학·순수과학·문학·역사 등은 저조했다.

한편 발행부수는 총1억1천283만부가 발행되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8.5%나 늘어났다. 이중 초판은 23.8%, 중판은 39%의 증가를 보였다. (別表 참조)

이렇듯 발행종수나 발행부수에 있어 중판 발행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출판사들이 신간 개발에 소극적이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한편 우리의 출판기획이 보다 충실해짐으로써 독자들로부터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교보문고·종로서적 등 대형서점이 집계한 상반기 베스트셀러 목록의 1위에서 20위까지의 60% 이상이 작년

작금년에 출판사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올 상반기의 발행종수는

도리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신간(초판)은 더 많이 줄어든 대신

중판만이 대폭 늘어나 우리 출판물

발행의 구조적인 파행성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출판사 수의 증가에 따라

출판영역이 광역화하고 전문출판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혹은 그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상반기에 발행된 출판물 가운데 가장 많은 종수를 기록한 분야는 아동분야로 초·중판을 합쳐 4,597종이 발행되었다. 이는 전체 출판물 종수의 5분의 1(21.7%)에 해당하는 양이다. 최근 아동도서의 단행본 출력이 늘어나고 있는 있으나, 대부분 전집이 주종을 이루는 아동전집물은 그 권수도 50권을 넘는 것이 상당수 있어 타분야보다 종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발행부수는 학습참고서가 전체 부수의 50% 이상을 차지, 38.5%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이는 중학교와 국민학교의 일부 교과서개편으로 새로운 참고서가 많이 개발된데다가, 이전에는 과목당 한가지 참고서만을 구입했으나 요즘은 2,3가지 이상의 참고서를 사는 등 구입패턴의 변화로 학습참고서의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서의 평균가격은 5,091원으로 작년 상반기(4,846원)에 비해 5.1%(245원)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페이지수는 평균 263페이지꼴로 도리어 3.3%(9면)나 줄어들었다. 책의 부피는 근래에 와서 점점 '경박단소'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85년엔 평균 308면이던 것이 5년간에 44면이나 줄어들었다는 계산이다.

출판사 전문화·세분화 경향

다음에 올 상반기 출판계 및 출판물의 특징적인 경향과 하반기 전망을 살펴본다.

① 출판의 서울집중현상 심화

출판의 서울집중현상은 지난해보다 더 심화된 것 같다. 출판사 등록이 자유롭게 되면서

1989년 상반기 출판통계

기간: 89. 1. 1~6. 30

분야별	구분	발행종수				발행부수
		초판	중판	계	전년비성장률(%)	
총	류	252	258	510	3.4	1,822,784
철	학	218	286	504	▽26.7	774,840
종	교	790	935	1725	2.3	8,136,653
사	회 과학	1695	839	2534	▽9.1	5,846,648
순	수 과학	130	211	341	▽13.8	497,010
기	술 과학	1146	936	2082	4.2	2,307,975
예	술	510	593	1103	1.8	2,733,970
이	학	578	547	1125	2.1	3,761,074
문	학	1598	1593	3191	▽15.4	6,247,800
역	사	444	214	658	▽15.5	1,091,632
학	습참고서	2452	286	2738	0.2	58,381,300
아	동	1590	3007	4597	23.8	21,229,100
계		11,403	9,705	21,108	▽0.5	112,830,876

지방에 있던 출판사도 서울로 올라와 새롭게 등록하는 등의 현상이 많았던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지방문화의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지방출판사의 육성 지원이 있어야 하며, 지방출판사가 겪는 유통구조의 불편을 최소화해야만 고질적인 도시집중화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전문출판사가 늘어나고 있다

출판사 등록이 자유롭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출판사의 수는 현재 4,700여사에 이르고 있다. 그에 따라 경쟁 또한 치열해 졌다.

그러나 출판사 수의 증가로 전문출판을 기획하는 출판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禪·명상철학 관계 책으로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정신세계사와 명상, 교육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책의 발간에 힘쓰고 있는 푸른나무, 무대예술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예니, 현대소련문학 등 러시아 관계 서적을 중심으로 출판하고 있는 열린책들 등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며, 그밖에도 사진출판의 해돋이, 철학서적의 서광사, 불교서적출판의 대원사·불일출판사 등 다양한 분야를 세분화, 출판사의 전문성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려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③ 공산권국가 작품의 꾸준한 발행

공산권국가의 작품 또한 꾸준히 출판되었다. 체코의 망명작가 밀란 쿤데라 같은 경우는 친우·민음사·지학사 등 몇 개의 출판사에서 3~4권의 번역서가 나왔고, 동독의 여류작가 크리스타 볼프의 「나누어진 하늘」 등의 문학작품과 중국의 사하로프라 불리는 방여지가 현

중국상황을 밝히고 있는 「방여지는 말한다」, 등소평의 생애를 기록한 「등소평 전기」 등의 정치관계 서적도 활발히 간행되었다.

④ 소설·수필의 판매 강세

상반기 판매동향을 보면 지난해 시집에 쏟아졌던 독자들의 관심이 줄어든 반면 소설과 수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보문고·종로서적이 집계한 상반기 베스트셀러 종합목록에 따르면 종합 50위권 내의 목록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0여종을 이들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도 「시간의 역사」 「재미있는 물리여행」 「코스모스」 등 순수과학물과 명랑아동소설, 교육동화, 철학동화 등 아동도서가 호황을 누렸다.

▲ 하반기 출판계 전망

경기침체의 현상이 쉽게 극복되지 않는 한 출판계도 침체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출판사의 신규등록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경쟁 또한 치열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책을 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모든 출판사가 독자들로 부터 애정과 관심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출판사는 개성적인 기획출판과 선명한 이념, 그리고 전문성을 살려 경쟁력을 강화시키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출판은 다소의 혼란과 과열경쟁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세분화·전문화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반기에는 독특한 목소리로 새롭게 출판계에 나타날 신규출판사의 출현을 기다려도 좋겠다. (대한출판문화협회 納本室 제공)